

『논리-철학 논고』의 ‘중대한 오류들’ *†‡

강진호§

나는 『논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1) 비트겐슈타인이 전기 시절에 왜 『논고』의 진술들을 무의미하다고 간주했으며 (2) 그가 후기 시절에 『논고』의 ‘중대한 오류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나는 『논고』 진술들이 무의미하다는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결론이, 모든 논리상항 표현들은 사어비 표현들이며 아울러 모든 필연적 진술들은 의미 없는 진술이라는 그의 독특한 논리 개념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고 제안한다. 이어서 나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어떠한 표현이나 진술도 어떤 맥락 하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맥락주의적 의미 개념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전기 시절 논리 개념을 비판하게 되었다고 제안한다. 나는 이 두 제안을 토대로 하여 발전시킨 나의 『논고』해석이 『논고』에 대한 전통적 해석과 이른바 ‘단호한 해석’이 부딪히는 주요 난점들을 해결하고 있음을 논변한다.

주 제 분석철학, 논리철학, 언어철학

주요어 비트겐슈타인, 『논고』, ‘단호한 해석’, 논리상항, 무의미

* 접수완료: 2007. 4. 21 / 심사 및 수정완료: 2007. 6. 10.

† 이 논문의 초고는 2007년 2월 22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분석철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논평을 맡아주신 박정일 교수와 참석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두 심사위원께도 감사를 드린다.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입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서울대 철학과 조교수

I.

최근 10여 년간 분석철학계에서는 『논리-철학 논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의 계기가 된 것은 코라 다이아몬드(Cora Diamond)가 논문 “사다리를 던져 버리기: 『논고』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Diamond 1988)에서 『논고』에 대한 전통적 해석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부터였다. 물론 『논고』는 모호하기로 악명 높은 책이며, 다이아몬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른바 ‘전통적’ 해석들은 서로 간에 중요한 차이점들을 많이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해석들은 적어도 『논고』에 등장하는 진술들을 표면상의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일 경우 『논고』의 진술들은 세계, 언어, 논리와 같은 주제들에 대한 특정한 철학적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잘 알려져 있는 이른바 ‘논리적 원자론’, ‘그림 이론’, ‘진리함수 이론’ 등이 바로 『논고』에 제시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이론들이다.

그러나 『논고』를 이렇게 직설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논고』의 6.54에 나오는 다음의 악명 높은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난점을 지니고 있다. 6.54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¹⁾

나의 문장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명료화를 수행하고 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만일 그가 나의 문장들을 거쳐서, 그것들을 던고서, 그것들을 넘어 올라간다면, 결국에는 나의 문장들을 무의미(unsinnig)²⁾한 것으로 인식한다. (말

1) 『논고』에서의 인용문은 Wittgenstein 1981로부터 이영철의 우리말 번역 (비트겐슈타인 2006a)을 참조하여 글쓴이가 번역하였다.

2)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의미없는(sinnlos)’과 ‘무의미한(unsinnig)’을 구분하고 있으며, 영미철학계에서는 이를 일반적으로 ‘senseless’와 ‘nonsensical’로 구분하여 옮기고 있다. 그러나 오그덴은 6.54에서 ‘unsinnig’를 ‘nonsenical’이 아니라 ‘senseless’로 번역하고 있다. II절 말미에서 오그덴의 ‘sinnlos/ unsinnig’ 번역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하자면 그는 사다리를 던고 올라간 후에 그것을 던져버려야 한다.)

그는 이 문장들을 넘어서야 한다. 그러면 그는 세계를 올바르게 바라본다.

(6.54)

물론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선언은 매우 역설적이며 또한 당혹스럽다. 『논고』의 진술들이, 따라서 이 책에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와 언어, 논리, 그리고 그 밖의 주제들에 대한 이론들이, 정말로 모두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단 말인가? 6.54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논고』의 전통적 해석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커다란 숙제였다. 전통적 해석에 대한 몇몇 옹호자들은 비트겐슈타인이 선언하고 있는 『논고』진술들의 무의미성이 『논고』의 다른 부분과 명백히 모순된다고 생각하여 6.54를 그냥 무시해 버렸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전통적 해석 옹호자들은 『논고』의 진술들이 무의미하긴 하지만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 세계, 언어, 논리 등에 대한 『논고』의 이론들을 전달해주고 있다고 제안함으로써 역설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³⁾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논문 “사다리를 던져 버리기”에서 이러한 전통적 해석 옹호자들의 견해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논고』의 진술들이 무의미하다는 6.54에서의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논고』의 진술들은 정말로, 글자 그대로 무의미하다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이아몬드는 오직 우리가 『논고』진술들의 진정한 무의미성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받아들일 때에만 비로소 비트겐슈타인의 전기철학과 후기철학 모두를 관통하고 있는 그의 반(反)이론적 철학관의 본질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다이아몬드의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고 『논고』의 진술들이 진정으로 무의미하다는 전제하에서 『논고』에 대한 해석을 발전시켜 보려는 일련의 학자들이 등장

3) 전자의 접근법을 가장 명시적으로 옹호한 학자로는 피터 카루더스가 있다.(Carruthers 1990, p.xi와 p.5). 후자의 접근법은 G.E.M. 앤스컴, 맥스 블랙, 퍼터 해커, H.O. 마운스, 데이비드 페어스, 에릭 슈테니우스 등에 의해 옹호되고 있다. (Anscombe 1971, Black 1967, Hacker 1989, Mounce 1989, Pears 1987, Stenius 1960).

하였다.⁴⁾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토마스 리켓츠(Thomas Ricketts)와 워렌 골드파브(Warren Goldfarb)가 제안한 ‘단호한 해석(Resolute Reading)’이라는 명칭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 해석이 『논고』 6.54를 설명하는데 대단히 무력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논고』에 대한 ‘단호한 해석’ 식의 접근법은 분명히 매력적인 측면이 있다. 우선 전통적 해석의 몇몇 옹호자들처럼 6.54가 『논고』의 나머지 부분과 명백히 모순되며 따라서 그냥 무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누구나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초보적인 모순을 비트겐슈타인 자신은 깨닫지 못했던 말인가?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해석의 대다수 옹호자들처럼 『논고』의 진술들이 무의미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 세계, 언어, 논리 등에 대한 자신의 이론들을 전달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견해를 취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 도대체 무의미한 진술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며, 설령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무의미한 진술들과 일반 진술들간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전통적 해석의 이러한 난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단호한 해석’ 식의 접근법을 취하는 이가 『논고』에 대해 궁극적으로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답변들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 중 ‘단호한 해석’에 대한 최근의 비판적 논의에서 특히 다음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제기되었다.⁵⁾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저작들에서 『논고』에 대한 비판을 담은 여러 구절들을 접할 수 있다. 특히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탐구』의 머리말에서, 자신이 『논고』에서 ‘중대한 오류들(schwere Irrtümer)’을 범했다고 명시적으로 고백하고 있다. (『탐구』, p.ii⁶⁾) 그러나 ‘단호한 해석’의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논고』의 진술

4) 이러한 학자들로 제임스 코난트, 코라 다이아몬드, 줄리엣 플로이드, 워렌 골드파브, 마이클 크레머, 매튜 오스트로, 토마스 리켓츠 등이 있다.(Conant 2002, Diamond 1988과 1991, Floyd 1998, Goldfarb 1997, Kremer 2002, Ostrow 2002, Ricketts 1996).

5) Hacker 2002, pp.374-82와 Proops 2001, pp.383-95를 참조.

들이 진정으로 무의미하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중대한 오류들’이 될 수 있겠는가? 아예 의미도 없는 진술들을 통해 도대체 비트겐슈타인이 『논고』에서 무슨 오류를 범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아는 한 ‘단호한 해석’의 옹호자들 중 이 문제에 대해 아직은 누구도 제대로 된 답변을 제시한 적이 없다.

본 논문의 목적은 『논고』의 진술들이 무의미하다는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당혹스러운 선언과 후기에서의 그의 『논고』 비판 양자가 모두 잘 설명될 수 있는, 『논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나는 II절에서, 『논고』 진술들의 무의미성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가 『논고』에서 진정으로 하고 있는 작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보이겠다. 그런 다음 나는 III절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논고』의 ‘중대한 오류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겠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면서, 나는 『논고』에 대한 전통적 해석과 ‘단호한 해석’이 궁극적으로는 모두 틀렸으며,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논고』 해석이 이들의 주요 난점들을 해결하고 있음을 보이겠다.

II.

왜 『논고』의 진술들이 무의미하다는 6.54에서의 비트겐슈타인의 선언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내가 보기에 『논고』에서 이 선언의 진정한 근거는 단지 암시만 되어 있을 뿐이며, 따라서 『논고』 진술들이 의견상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 근거를 파악해보려는 시도는 대개 실패할 듯하다. 아마도 이 점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의 머리말을 “이 책은 아마 이 책 속에 표현된 생각들을 – 또는 어쨌든 비슷한 생각들을 – 스스로 이미 언젠가 해 본 사람만이 이해할 것이다.”(p.7)라는 기묘한 진술로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비트겐

6) 『탐구』에서의 인용들은 Wittgenstein 1958로부터 앤스컴의 영문 번역과 이영철의 우리말 번역 (이영철 2006b)을 참조하여 글쓴이가 번역하였다.

슈타인의 『논고』 이전 미발표 원고들이 많이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1913년 “논리에 대한 노트”, 1914년 “노르웨이에서 G.E. 무어에게 구술한 노트”, 1914년에서 1917년 초까지의 『참전노트 1914-16』, 그리고 『초기논고』를 들 수 있다(Wittgenstein 1984, 1996). 비록 이 원고들에 등장하는 많은 진술들이 비트겐슈타인 전기철학의 발전 과정에서 단지 과도기적인 단계들만을 대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문제들이 무엇이었으며 그가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견해들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나갔는지에 대해 이 원고들에서 결정적인 단서들을 얻어낼 수 있다.

나는 다른 작업을 통해 이 원고들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Kang 2005). 나의 연구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이 자신의 전기 철학에서 씨름했던 중심 문제는 바로 러셀(Russell)이 1903년 『수학의 원리들』(Russell 1996)에서 논의한 이래 미해결 상태로 남겨놓은, 논리의 본성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였다. 러셀은 이 문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첫번째 부분은 러셀이 ‘논리상항(logical constants)’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본성과 관련된 문제였다. 오늘날의 논리학에서 ‘논리상항’이란 용어는 자신의 의미가 모든(논리학적 의미에서의) 해석에서 고정되어 있는 기호들을 뜻한다. 그런 기호들에 무엇이 속해야만 하는가는 논리철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논리학에서 논리상항에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것들로 ‘또는’, ‘아니다’, ‘그리고’와 같은 진리함수적 연결사들, ‘모든’, ‘어떤’과 같은 양화사들, 그리고 동일성 기호가 있다. 그러나 러셀은 논리상항들을 언어적 기호들이 아니라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자들로 간주하였다.⁷⁾ 또한 그의 논리상항 목록은 오늘날 논리학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논리상항 목록과 상당히 달랐다. 실제로 러셀이 『수학의 원리들』에서 처음 논리상항들의 목록을 제시한 이후 그 목록은 여

7) 러셀의 이러한 존재론적 논리상항 개념은 논리가 세계의 가장 보편적인 속성들 및 그 속성들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그의 존재론적 논리 개념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가령 Russell 1993, p.187을 참조.

러가지 변화를 겪었는데, 1911년부터 1913년까지 비트겐슈타인이 러셀과 같이 연구하는 기간 동안 러셀이 제시한 목록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 (1) 존재론적 범주들 (개체 범주, 일항 관계 범주, 이항 관계 범주 등),
- (2) 원자 명제들의 논리적 형식들 (주어-술어 형식(ϕx), 이항 관계 형식(ϕxy) 등),
- (3) 유형 이론(Type Theory)에 따라 단계별로 나뉘어진 진리함수들 (일계 부정, 이계 연언 등),
- (4) 유형 이론에 따라 단계별로 나뉘어진 양화사들 (일계 보편 양화사, 이계 존재 양화사 등)⁸⁾

그러나 러셀은 이러한 자신의 논리 상황 목록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 논리상황들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만족스러운 대답을 갖고 있지 못했다. 논리의 본성에 대한 문제 중 두번째 부분은 논리 법칙들에 관한 것이었다. 어떠한 법칙들이 논리 법칙들인가?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논리 법칙들은 다른 학문들의 법칙들과 어떻게 다른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러셀은 만족스러운 답변을 갖고 있지 못했다. 특히 이 문제는 러셀이 화이트헤드(Whitehead)와 공저로 1910년에 출판한 『수학 원리』 1권(Russell & Whitehead 1973)에서 수학을 논리학으로 환원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환원 공리(Axiom of Reducibility)나 이른바 무한공리(Axiom of Infinity)와 같이 논리 법칙이라고 보기 곤란한 원리들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전기 철학에서의 비트겐슈타인의 중심 관심사 또한 논리 상황의 본성은 무엇이며 논리 법칙의 본성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들에 대해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발전시킨 이른바 ‘답변’은 매우 기묘한 것이었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논리상황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언어

8) Russell 1984, pp.97-101과 Russell 1992를 참조. 여기서 러셀이 말하고 있는 명제(proposition)는 언어적 존재자가 아니라 세계에 존재하는 사태를 의미한다.

적 방식으로 이를 보여주는데, 그에 따르면 우리 일상 언어에서 ‘대상’, ‘사태’, ‘사실’, ‘아니다’, ‘그리고’, ‘또는’, ‘만약 ... 이면’, ‘모든’, ‘어떤’, ‘같다’, ‘참’, ‘거짓’처럼 외견상 (러셀 식의) 논리상항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들은 모두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한 표기법에서 일반적 표현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에 의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논고』 4.0312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자신의 ‘근본 생각(Grundgedanke)’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의 진정한 의미이다.

나의 근본 생각은 ‘논리상항’들은 표현하지(vertreten) 않는다는 것이다. 즉 사실들의 논리는 표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4.0312)⁹⁾

더 나아가 비트겐슈타인은 논리 법칙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그는 이 또한 언어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데, 그에 따르면 소위 논리법칙들을 표현하는 이른바 ‘문장’들이란 모두 의미없는(sinnlos) 동어반복 문장들로서,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한 표기법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사이비 문장들이다.

그러나 논리 법칙들이 없다면 어떻게 논리적 추론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답변은 논리적 추론에 대한 설명이나 정당화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5.132 참조). III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이유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은 우리 일상 언어의 모든 (진정한) 문장들 각각이 궁극적으로는 요소 문장들의 (무한할 수도 있는) 진리함수적 복합체로 분석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는 이 전제를 토대로 해서, 모든 논리적 추론은 진리함수적 추론이며, 문장들간의 추론 관계는 우리가 이 문장

9) ‘근본생각’의 원형은 비트겐슈타인이 1912년 러셀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의 가장 초창기 철학적 진술들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이 등장하고 있다: “논리[에 대한 내 생각]은 여전히 유용적입니다만, 한가지 점은 내게 점점 더 분명해 보입니다: 논리의 명제들은 오직 유사 변항(apparent variable)들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사 변항들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무엇으로 드러나던지 간에, 그 설명의 귀결은 논리상항과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어야만 합니다.”(Wittgenstein 1995, p.14)

들을 그의 TF-표기법을 사용해 완전히 분석된 형태로 바꾸어 쓰기만 하면 문장들 자신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악해 낼 수 있다고 간주한다. 가령 문장 ‘ p 또는 q ’는 비트겐슈타인의 TF-표기법에서 다음의 문장

p	q	
T	T	T
T	F	T
F	T	T
F	F	F

로 번역되며, 우리는 이 TF-표기법 문장으로부터 ‘ p 또는 q ’가 ‘ p ’로부터 따라나온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파악해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위의 TF-표기법 문장은 ‘ p ’가 참일 때 ‘ p 또는 q ’가 거짓일 수 없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프레게나 러셀과 달리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적 추론을 설명하기 위해 공리들이나 추론규칙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의 TF-표기법에서 문장들의 참-거짓 가능성들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문장의 의미(Sinn)는, 바로 그 명제가 참일 수 있는 특정한 가능성과 거짓일 수 있는 특정한 가능성, 다시 말해 그 문장의 참-거짓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TF-표기법으로의 번역을 통해 일단 문장들의 의미들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이 의미들로부터 그 문장들간의 추론 관계들을 직접 파악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를 전적으로 문장의 의미에 내재적이게끔 만든다.

그러나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 번째로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논고』에 제시된 비트겐슈타인의 TF-표기법이 오늘날 논리학의 진리표(truth-table)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두 가지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

다. 현대 논리학의 진리표는 (논리학적 의미에서의) 의미론을 전개시켜 나가기 위한 도구로서, 문장의 진리표에 나타난 각 행은 그 문장의 (논리학적 의미에서의) 해석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논리학의 진리표는 해석의 대상이 되는 대상언어(object language)와 해석을 수행하는 언어인 메타언어(meta-language)간의 구분, 아울러 메타 언어에서의 참(truth) 개념의 존재를 전제할 때에만 비로소 성립될 수 있는 도구이다. 그러나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언어가 동일한 레벨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언어 L이 다른 언어 M의 논리적 속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그는 대상언어와 메타언어의 구분 같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¹⁰⁾ 비트겐슈타인의 TF-표기법은 의미론적 도구가 아니라 언어적 표기수단의 하나로서, 표현들의 논리적 속성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장점을 지닌 표기법이다. 바로 이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에서 자신의 TF-표기법을 ‘문장 기호(Satzzeichen)’ (4.442)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장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를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

T

F

와 같은 TF-표기법으로 바꾸어 쓰는 것은 일상언어 문장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언어적 표기 방법 중 하나이다. 위의 TF-표기법 번역문은 일상언어 문장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와 달리 이 문장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논리적 속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다 더 일목요연한 표기법이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우리가 비록 분명히 깨닫고 있지는 못하지만, 언어적 표현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 표현들의 모든 논리적 속성들을 어떤 의미

10) 오늘날의 대상언어-메타언어 구분과 비슷한 것이 처음 제시된 곳은 바로 『논고』에 대한 러셀의 서론에서였다. Wittgenstein 1981, p.23 참조.

에서 이미 알고 있다. 가령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라는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문장이 참일 수 있는 가능성과 거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TF-표기법 문장을 사용하는 대신 일상언어 문장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를 그냥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의 TF-표기법 번역에 나타나는 부호들 ‘T’와 ‘F’는 실질적인 표현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부호들을 통해 진정으로 새롭게 덧붙여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 논리학에서의 ‘참이다’, ‘참’, ‘거짓이다’, ‘거짓’ 등의 표현들과는 달리, 비트겐슈타인의 TF-표기법에 나타나는 ‘T’들과 ‘F’들은 독립적인 표현들이 아니며 메타 언어에서의 술어나 명사는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이 부호들은 쉼표나 콜론과 같은 구두점(句讀點)들과 더 비슷하다. (5.4611 참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은 우리 언어에서의 ‘참이다’나 ‘거짓이다’와 같은 표현들이 사이비 표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표현들은 피상적으로 보기에 ‘빨강다’나 ‘인간이다’와 같은 일상언어 술어들과 아무런 문법적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참이나 거짓과 같은 논리적 속성들이 빨강임이나 인간임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속성이라는 환상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사실은, 비트겐슈타인이 어떤 실질적인 논리 이론을 창안하고 발전시켰으므로써 자신의 ‘근본 생각’ 및 특유의 논리 개념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놀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논리상향 표현들이 모두 사이비 표현들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옳다면, 우리에게는 논리 이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개념적 수단도 없다는 사실이 곧바로 따라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논리 이론을 발전시키는 대신 비트겐슈타인은 이른바 논리상향 표현들이라는 것들이 우리 언어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들이 사용되는 방식이 다른 표현들이 사용되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논리 개념에 다다르게 되었다. 논리가 모든 가능한 언어들에 공통적이라고 비트겐슈타인이 전제하고 있으므로,

그가 보기에 논리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이와 같은 깨달음은 능숙한 언어사용자라면 누구라도 다다를 수 있다. 자신이 부지불식간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논리상황 표현들의 사용법들을 스스로에게 잘 상기시킬 수만 있다면 말이다.¹¹⁾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중부정문 ‘소크라테스는 철학자가 아닌 것이 아니다’에 두 번 반복되어 나타나는 부정 표현이 이 문장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장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다’에서 사라져버림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령 ‘철수의 아버지의 아버지’와 같이 논리상황 표현이 아닌 표현들을 두 번 반복할 때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문장 ‘비가 오고 그리고 눈이 오는 것은 아니다’와 문장 ‘비가 오지 않거나 눈이 오지 않는다’가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연언 문장에 등장하는 진리함수적 연결사 표현 ‘그리고’는 뒤의 선언 문장에서 사라져버리고 만다. 바로 이러한 사소한 사실들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진리함수적 연결사 표현들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을 위한 첫걸음을 이룬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관찰을 통해 동일한 의미를 가진 문장들에서 진리함수적 연결사들이 다른 표현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기호적 동일성(symbolic identity)을 보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진리함수 연결사들과 문장들의 참-거짓 가능성들 간의 관계를 더 관찰해 봄으로써, 우리는 모든 진리함수 연결사들이 문장들의 참-거짓 가능성들이라는 논리적 속성에 의해 제거 가능함을 깨달을 수 있다. 보편양화 문장이나 존재양화 문장과 같은 양화 문장들과 관련해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들을 어떤 공통 기호를 공유하는 요소 문장들의 (무한할 수도

11)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견해가 설득력 있으려면 모든 능숙한 언어사용자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으리라고 가정되는 ‘언어의 논리’는 상당히 단순해야 한다. (5.4541 참조). 그렇지 않다면 능숙한 언어사용자가 아무리 언어 사용법들을 주의깊게 관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논리가 그에게 분명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논리’ 전체를 진리함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방금 말한 요구를 실제로 만족시키고 있는 듯하다. 반면에 현대 언어학의 주요 의미론들(가령 몬태규 의미론(Montague Semantics))이 전제하고 있는 논리들은 능숙한 언어사용자들이 인지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있는) 연언이나 선언으로 간주하고 있다. 가령 그는 존재 양화 문장 $(\exists x)Fx$ 를, 1항 술어 F 를 공유하고 있는 요소 문장들의 (무한할 수도 있는) 선언 문장 Fa 이거나 Fb 이거나 Fc 이거나...’으로 간주한다. 『논고』에 등장하는 연산 기호 N 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러한 선언 문장을 $N(N(Fx))$ 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 (5.52 참조), 이 표현은 실제로는 다음의 TF-표기법 문장

Fa	Fb	Fc	...	
T	T	T	T
.	T
.	
F	F	F		F

의 약식 표기이다. 이 TF-표기법 표현에서 문장 $(\exists x)Fx$ 에 나타난 존재 양화 표현 ‘어떤($\exists x$)’은 사라져버린다. 동일성이라는 논리적 속성을 나타내는 논리상항 표현 ‘같다(=)’와 관련해서, 비트겐슈타인은 TF-표기법에서 서로 다른 대상들에 대해 늘 서로 다른 기호들을 사용한다는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동일성 표현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5.53-5.5352). 마지막으로 ‘대상’, ‘함수’, ‘사태’, ‘사실’, ‘수’ 등과 같은 논리적 범주를 나타내는 논리 상항 표현들은, 이들을 이 논리 상항들 각각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들이 필연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형식적 속성들을 보여주는 변항들로 바꿈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4.127-4.1272 참조). 예를 들어, ‘나는 최소한 두 개의 대상을 본다’라는 문장은 $(\exists x)(\exists y)(Gx \ \& \ Gy)$ ¹²⁾라는 문장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뒤의 문장에서 앞의 문장에 나타난 논리상항 표현 ‘대상’은 속박 변항들로 대치되어버린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변항은 독립적인

12) ‘나는 ___를 본다’는 표현 대신 술어 기호 ‘G’를 사용하였다. 양화사 내의 식에 $x \neq y$ 를 따로 덧붙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비트겐슈타인의 표기법은 동일성 기호를 제거해버리면서 아울러 서로 다른 변항들이 같은 대상을 자신들의 값으로 취할 수 없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표현이 아니라 어떤 논리적 범주에 속하는 비논리표현들에 공통된 논리적 속성을 보여주는 부호에 불과하므로, ‘나는 최소한 두 개의 대상을 본다’와 같은 문장에 나타난 ‘대상’이라는 표현 또한 TF-표기법에서 제거될 수 있다.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말대로 ‘참’, ‘아니다’, ‘대상’과 같은 이른바 논리상향 표현들이 실제로는 모두 사이비 표현들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로부터, ‘참은 무엇인가?’, ‘부정은 무엇인가?’, ‘대상은 무엇인가?’와 같은 논리상향들의 본성과 관련된 질문들을 아예 표현할 수조차도 없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만약 논리상향 표현들이 모두 사이비 표현들이라면, 논리의 본성에 대한 물음들 또한 모두 사이비 물음들이라는 결론이 따라나온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논리의 본성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답변이다. 그가 내리는 결론은 이 모든 물음들이 잘못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점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우리 일상언어에 있는 ‘아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참’, ‘동일하다’, ‘대상’, ‘사실’과 같은 사이비 표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물음들을 진정한 물음들로 잘못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논고』에서 논리의 본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진술들이 왜 진정으로 무의미한 진술들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진정한 목표는, 우리가 논리의 본성에 대한 질문들을 물어볼 수 있고 답변들도 찾아낼 수 있다는 바로 그 가정 자체가 환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논리에 대한 『논고』의 진술들이 정말로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의 본성에 대해 탐구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논고』에 등장하는 다른 종류의 진술들은 어떤가? 물론 『논고』에 나오는 이른바 ‘논리’의 본성에 대한 진술들에는 오늘날의 의미에서 논리학에 속하는 진술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된다. 왜냐하면 프레게와 러셀이 가지고 있던 존재론적 논리 개념의 영향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논리상항 표현들에는 오늘날 우리들이라면 존재론적 표현들이라고 분류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본 것과 같은 ‘대상’, ‘사태’, ‘사실’, ‘수’ 등의 표현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이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논고』에는 지식, 마음, 자연과학, 윤리학, 미학, 신, 인생의 의미 등 논리 이외의 여러가지 주제들에 대한 철학적 진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진술들은 왜 무의미하다고 취급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이른바 답변들 모두는 이 답변들이 만약 참이라면 **필연적으로** 참이어야 한다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아니 최소한 비트겐슈타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는 철학적 진술들의 그러한 필연성이야말로 바로 철학적 진술들과 일상적, 과학적 진술들을 결정적으로 구분 짓는 속성이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본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개념에 따르면, 문장의 의미는 다름 아닌 그 문장의 참-거짓 가능성이며, 논리적 추론들은 바로 이 참-거짓 가능성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철학적 진술들은 필연적으로 참이고 따라서 거짓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진술들은 의미가 없으며, 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예를 들어, 『논고』에 나오는 “생각하고 표상하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5.631)라는 진술이 필연적으로 참이고, 따라서 거짓일 수 없다고 가정해보자.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개념에 따르면, 그럴 경우 우리는 이 진술을 진정한 의미에서 부정하거나, 다른 문장과 선언으로 연결하거나, 또는 조건문의 전건으로 사용하거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어떤 진술을 진정한 의미에서 부정, 선언문화, 조건문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진술이 참-거짓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논고』 5.631의 진술은 다른 진술들과 추론적 관계들을 맺을 수 없으며, 논리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철학적 진술들이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단지 논리가 문장의 의미에 내재적이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철학적 진술들의 무의미성을 깨닫게 하는 것 또한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진정으로 하고 있는 작업, 즉 논리의 참된 본성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려는 작업의 핵심 중 하나이다. 이제 『논고』의 진술들을 보면, 이 진술들은 바로 철학적 진술들이 공유하고 있는 필연적으로 참이어야 한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논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성취했다면 우리는 또한 『논고』의 진술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울러 이 진술들에 등장하는 철학적 용어들이 모두 사이비 표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그러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논고』에서 진정으로 하고 있는 작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가늠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우리는 『논고』의 서문에 등장하는 다음의 수수께끼 같은 언명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철학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내가 믿건대 이 문제들이 우리 언어의 논리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의미 전부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명료하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논고』, p.27)

비트겐슈타인은 여기서 아무런 수식어도 없이 그냥 ‘철학적 문제들’을 『논고』가 다루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므로 마치 우리 ‘언어의 논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모든 철학적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물론 『논고』를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당혹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지금까지의 논의가 옳다면, 우리는 도대체 비트겐슈타인이 왜 이런 대담하고 전면적인 주장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생각은, 우리가 일단 ‘언어의 논리’의 본성을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모든 철학적 문제들에 대하여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들이 필연적으로 참이고 따라서 논리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이비 문제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는 것이다. 사실 위에서 인용한 문단은 상당히 미묘한 함축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본 것

처럼 ‘철학적 문제들’ 중 하나의 문제, 아니 비트겐슈타인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바로 언어의 논리의 본성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인용문은 논리의 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 또한 우리가 논리의 본성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귀결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귀결은 어떻게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의 본성에 대해 러셀이 제기한 문제들을 ‘해소(dissolve)’시킴으로써 그 문제들을 ‘해결(solve)’하였는가에 대한 앞에서의 논의와 매우 잘 들어맞는 듯하다.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논리의 본성에 관한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해소시키는 것을 철학적 문제들 일반의 탐구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간주한다.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답변들이 필연적으로 참이고 따라서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이 문제들 또한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철학적 문제들에 등장하는 용어들, 가령 ‘신’, ‘아름다움’, ‘형이상학적 자아’, ‘초월적’ 과 같은 용어들은 논리상향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사이비 표현들이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한 표기법에서는 모든 철학적 용어들 및 이 용어들을 사용한 모든 진술들 역시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논고』를 보면,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적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해소하는 이러한 방식을 이론적 문제들 뿐 아니라 실천적 문제들까지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삶의 의미에 관한 문제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해결’은, 이 문제가 잘못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답변도, 그것이 필연적으로 참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따라서 이 문제와 답변 모두는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한 표기법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러므로 『논고』에서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그 문제의 소멸(Verschwinden)에서 찾아진다.”(6.521)라고 비트겐슈타인이 말했을 때, 그는 글자 그대로,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한 표기법에서는 삶의 의미라는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소멸될 것임을, 그럼으로써 이 표기법을 사용하는 이들은 그들이 이 질문을 물어볼 수 있는 수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깨달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나는 논리의 진술들과 다른 철학적 주제들에 대한

진술들 간의 유사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논리의 진술들 중에는 가령 ‘ p 이 지나 p 가 아니다’와 같이 동어반복적인 문장들이 있으며, 비트겐슈타인은 이 문장들이 의미없기(sinnlos)는 하지만 무의미(unsinnig)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다 (4.4611). ‘단호한 해석’을 선호하는 학자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학자들이 『논고』에서 ‘의미없는 진술’과 ‘무의미한 진술’간의 구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므로 이들간의 구분이 『논고』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나의 해석의 함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논고』에서 ‘의미없는 진술’과 ‘무의미한 진술’간에는 실제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두 종류의 진술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 즉 이들 모두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한 표기법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속성이다. 실제로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우리는 논리적 문장들 [= 동어반복적 문장들] 없이도 지낼 수 있다. 왜냐하면 적절한 표기법 하에서 우리는 문장들을 단지 바라보기만 해도 그 문장들의 형식적 속성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6.122)라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나의 해석은 ‘의미없는 진술’과 ‘무의미한 진술’간의 차이를 극소화시킴으로써 오그덴(Ogden)에 의해 이루어진 『논고』의 최초 영문 번역판에서 발견되는 오래된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다. 오그덴 번역판에서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그가 ‘sinnlos’과 ‘unsinnig’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여러 곳에서 ‘unsinnig’를 ‘nonsensical’이 아니라 ‘senseless’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오그덴은 『논고』의 진술들이 ‘unsinnig’하다고 비트겐슈타인이 선언하고 있는 바로 6.54의 그 구절에 등장하는 ‘unsinnig’를 ‘senseless’라고 번역하고 있다.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논고』의 영문 번역과 관련하여 오그덴과 활발한 서신교환을 했으며 또한 자세한 논평들을 보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¹³⁾ 이 논평들 중 하나가 바로 6.54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은 오그덴이 독일어 문장

13) 이 서신들과 논평들은 G.H. 폰 리히트가 편집하여 Wittgenstein 1973으로 출판하였다.

“Meine Sätze erläutern”을 수동태 형식의 영어 문장 “My propositions are elucidated”로 번역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Wittgenstein 1973, p.51). 그러나 기묘하게도 비트겐슈타인은 6.54에서 오그덴이 ‘unsinnig’를 ‘senseless’라고 번역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만일 거의 모든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sinnlos/ unsinnig’ 구분이 『논고』에서 정말로 중요하다면, 도대체 비트겐슈타인이 오그덴 번역에서의 이와 같이 명백한 잘못을 왜 지적하지 않았는가라는 곤혹스러운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만일 나의 해석이 옳고, 따라서 『논고』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의미없는 문장 및 무의미한 문장 모두가 의미를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오그덴이 ‘unsinnig’를 ‘senseless’로 번역한 것이 왜 비트겐슈타인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지 - 심지어 6.54에서조차도 -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다.

III.

이제 본 논문의 I절에서 제기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보자. 지금까지 제안한 해석이 옳고,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이 자신의 전기 철학에서 『논고』의 진술들이 진정으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면, 도대체 『탐구』머리말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논고』의 ‘중대한 오류들’이란 것이 무엇일 수 있는가? 의미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진술들을 통해 비트겐슈타인이 무슨 오류를 범할 수 있었던 말인가?

이 문제에 대한 나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오류’들 중 하나는, 바로 『논고』의 진술들이 무의미하다는 그 생각이었다. 후기에 와서 그는 이 생각이 옳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논고』의 진술들이 무의미하지 않단 말인가? 그것도 아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이 질문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은 없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논고』의 진술들이 구체적인 맥락들에서 어떻게 사용되

능가에 달려있다. 어떤 맥락 하에서 이 진술들은 의미가 있다. 어떤 맥락 하에서는 없다. 즉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후기 철학에서, 철학적 용어들과 진술들이 완벽하게 합법적인 방식들로 사용될 수도 있는 맥락들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비록 “사자들의 집합은 사자가 아니다”는 무의미한 것처럼, 그래서 단지 예의상으로만 이 문장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이 문장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지 않고, 적절히 사용되지만 한다면 올바른 문장으로 간주하고 싶다. (따라서 『논고』에서와 같이 취급하지는 않겠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생각은 달라졌다. 이제 이 점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장과 관련해서도 어떤 언어 놀이가 존재한다. (Wittgenstein 1978, pp.402-3)¹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적 용어들과 진술들에 대해 취하게 된 매우 다른 태도이다. 전기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철학적 용어들은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논리에 관한 용어들인데) 모두 사이비 표현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한 표기법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근본 생각’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논고』가 바로 ‘근본 생각’으로 인해 전통적 형이상학자들과 가장 깊은 수준에서 볼 때 동일하게 잘못된 전제, 즉 철학적 용어들이 어떤 식으로든 본질적으로 특별하다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물론 전기 비트겐슈타인이 이 전제를 발전시켜 나간 방식은 전통적 형이상학자들과 전혀 다르며, 바로 이 점에서 『논고』는 혁명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전통적 형이상학자들은 철학적 용어들을 통해 우리가 세계의 보편적이고 필연

14) Wittgenstein 1978의 편집자들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은 1944년 봄에 이 인용문을 작성했다. 이안 프로프스(Ian Proops) 또한 ‘단호한 해석’에 대한 그의 비판에서 이 문단을 인용하면서 (Proops 2001, p.386), 비트겐슈타인의 무의미 개념이 후기 시절에 변화하였다는 함축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프로프스는 이러한 함축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적인 구조를 밝혀내는 학문, 즉 형이상학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들이 본질적으로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논고』에서의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용어들이 세계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구조를 서술하려고 하는 바로 그 성격 때문에 합법적인 표현들이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이제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용어들이 전통적 형이상학자들의 의미에서건 『논고』의 의미에서건 본질적으로 특별하다는 바로 그 전제를 포기한다. 우리 언어의 모든 표현들은 동일선상에 놓여있다. 철학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완전히 사라져버려야 하는 본질적으로 특별한 ‘철학적’ 용어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철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언어에서 나름대로 완전히 합법적인 사용법들을 가지고 있는 용어들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트겐슈타인이 후기 철학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언어에서 철학적 어휘들 전체를 단번에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그가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것은 “단어들을 그들의 형이상학적 사용에서 일상적 사용으로 돌려보내는 것” (『탐구』, §116)이며, 단어들에 대한 이러한 형이상학적 사용들에서 “언어는 휴가 중이다” (『탐구』, §38)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제 후기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이른바 ‘논리상향’ 표현들을 포함한 일상 언어의 모든 용어들은 무수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우리는 이 용어들이 언제 일상적인 방식으로 적절하게 사용될지, 그리고 언제 형이상학적 방식으로 적절치 않게 사용될지, 미리 알지 못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언제 철학적 문제들이 튀어나올지 우리는 미리 알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철학적 진술들의 무의미성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일반적 기준이 없다. 우리는 단지 철학적 문제들이 구체적 맥락들 속에서 어떻게 제기되게 되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이 문제들을 사례 별로 하나씩 하나씩 해소시킬 수 있을 뿐이다. 철학적 어휘들 전체에 대한 완전한 제거란 환상이었다. 모든 철학적 문제들이 본질적인 면에서 단번에 해소될 수 있다는 가정은 독단이며 오만이였다.

나는 이러한 환상, 이러한 독단과 오만이, 모든 논리상향 표현들이 사이

비 표현들이라는 『논고』에서의 비트겐슈타인의 ‘근본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이 ‘근본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나는 II 절에서, 논리상향 표현들이 우리 언어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비트겐슈타인이 면밀하게 관찰함으로써 그가 이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찰에 있어서 그가 어떠한 논리 이론도 전제하지 않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 제안을 수정하려고 한다. 비록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상향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관찰이 순전히 기술(記述)적이며 어떠한 전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의 관찰이 어떠한 논리 이론도 전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논리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잘못된 ‘그림(Bild)’을 가지고 있었다. 논리에 대한 이 잘못된 그림이 비트겐슈타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다. (『탐구』, §115 참조). 그리고 이로 인해 그는 우리 일상 언어에서의 논리상향 표현들의 사용을 편견 없는 눈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

이 잘못된 그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논리가 가진 최고의 보편성과 관련된 그림이다. 이 그림을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그림일 뿐이고 분명하게 진술된 견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후기 비트겐슈타인 또한 논리가 어떤 의미에서 최고로 보편적이라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그가 거부하는 것은, 논리가 최고로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가능한 언어들이 본질적으로 공유하는 필연적 속성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논고』의 ‘근본 생각’을 낳은 것은 바로 이 생각이었다. 또한 언어 사용과 논리적 추론에 대해 왜곡되고 과도하게 단순화된 개념을 낳은 것도 이 생각이었으며, 이로 인해 ‘논리적으로 진정한’ 요소 문장들이라는 환영(幻影)과 요소 문장들로의 논리적 분석이라는 미망(迷妄)을 낳게 한 것 또한 이 생각이었다. 이제 이들에 대해 하나 하나 살펴보자.

거의 대부분의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비트겐슈타인 또한 『논고』에서, 언어는 자신을 이루고 있는 언어적 표현들의 사용법들을 규정하는 규약(convention)들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규약

들은 해석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규약들 각각을 무한히 많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만약 논리상항들을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들이 있다면, 이 표현들의 의미 또한 이 표현들의 사용법을 규정하는 규약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무한히 많은 다른 방식들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논리상항들은 모든 가능한 언어가 필연적으로 지니고 있는 속성들을 제공하고 있다. 방금 말한 이유 때문에 규약들을 통해 언어가 그런 필연적 속성들을 지닐 수는 없다. 그러므로 논리상항들은 규약들에 근거할 수 없다. 언어적 표현들은 어떤 것이든 모두 규약들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언어적 표현들도 진정으로 논리상항을 나타낼 수는 없다는 결론이 따라나온다. 그리고 이는 다름 아닌 비트겐슈타인의 ‘근본 생각’이다.

모든 가능한 언어의 본질인 단일한 논리가 있다는 그림은 또한 왜곡되고 과도하게 단순화된 언어 사용 개념을 낳는다. 문장들과 관련해서는, 논리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가능한 문장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트겐슈타인이 간주하는 속성은 이들이 참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있다는 속성, 또는 전기 비트겐슈타인에게서 결국 같은 말이지만¹⁵⁾ 이들이 주장될 수 있거나 부정될 수 있다는 속성이다. 그러므로 논리적 관점에서 보는 한, 주장, 부정,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본적 연산들로부터 따라나오는 다른 진리함수적 연산들만이 문장들을 사용하는 유일한 방식들로 취급되어 버린다. 문장을 구성하는 표현들과 관련해서는, 이들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는 속성은 이들이 무엇인가를 지칭하고 있다는 속성이다. 그러므로 ‘참’, ‘거짓’, ‘주장’, ‘부정’, ‘지칭’과 같은 용어들은 모든 가능한 언어들이 공유하고 있는 논리적 속성들을 나타낸다고 간주된다. 논리적 관점에서 보는 한, 어떤 가능한 언어의 사용법들도 이 용어들에 의해 완전하게 서술되는 것이다. 이렇게 왜곡되고 과도하게 단순화된 언어 사용 개념은 이어서 과도하게 단순화된 『논고』의 논리적 추론 개념을 낳는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논리적 추론과 관

15) 이에 대한 옹호 논변으로는 Kang 2005, Ch.4 참조.

런 있는 문장의 속성들이 모든 가능한 문장들에 의해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장, 부정, 그리고 이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다른 진리함수적 연산들만이 논리적 추론과 관련 있다고 결론 내리게 될 것이며, 따라서 진리함수적 연산만이 유일한 논리적 추론 형태라고 결론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과도하게 단순화된 논리적 추론 개념은 ‘논리적으로 진정한’ 요소 문장이라는 환영과 그러한 요소 문장으로의 논리적 분석이라는 미망을 낳는다. 앞에서 본 것처럼 『논고』의 비트겐슈타인은 능숙한 언어 사용자라면 누구나 논리상향 표현들의 행태를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논리적 추론의 진리함수적 성격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모든 논리적 추론이 진리함수적이라는 생각은 별로 상식적이지도 그럴 듯 하지도 않다. 가령, ‘A는 빨강다’라는 진술로부터 우리는 ‘A는 녹색이 아니다’라는 진술을 추론할 수 있는데, 이 추론은 전혀 진리함수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비트겐슈타인 또한 이러한 의견상의 반례들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두 색깔 진술들간의 추론 관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좀 더 논리적 분석을 해나가면 결국 그들의 진리함수적 성격이 드러날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다 (6.3751). 도대체 그런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사실 비트겐슈타인은 여기서 숨겨진 전제, 즉 논리적 추론과 관련된 모든 속성들은 모든 가능한 언어의 모든 문장에 공통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본 것처럼 가령 ‘A는 녹색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A는 빨강다’라는 문장으로부터 따라나오기 때문에, 연언문 ‘A는 빨강다. 그리고 A는 녹색이다.’는 결코 참이 될 수 없다. 이제 ‘A는 빨강다’와 ‘A는 녹색이다’가 요소 문장들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임의의 두 요소 문장 ‘p’와 ‘q’의 연언에 대해 그것이 늘 다음의 TF-표기법과 동일시 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p	q	
T	T	T
T	F	F
F	T	F
F	F	F

왜냐하면 ‘ p ’가 ‘ A 는 빨갳다’이고 ‘ q ’가 ‘ A 는 녹색이다’일 때, 이 표기법의 첫 줄에서 보여지는 가능성은 배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문장의 연언은 TF-표기법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두 요소 문장의 연언은 그 연언지인 요소 문장들의 성격에 따라 그 때 그 때 다르게 표시될 것이며, 따라서 모든 가능한 문장들의 공통 속성인 참-거짓 가능성 속성에만 호소해서 연언이라는 진리함수적 연산의 본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귀결은 논리적 속성이 모든 가능한 언어의 모든 문장에 공통된 속성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근본 전제에 치명타를 주는 결론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은 모든 논리적 추론이 분석을 통해서 결국 진리함수적 추론으로 드러나야만 한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모든 논리적 추론이 진리함수적 추론이어야 한다면, 우리가 논리적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문장들은 진리함수적으로 상호 독립적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진리함수적 연산들을 문장들의 참-거짓 가능성들만으로 대치하여 제거해버리는 단일한 방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논고』를 보면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적으로 진정한 요소문장들에 대해 정확히 이러한 진리함수적 상호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11, 5.134). 우리 일상 언어에서 요소 문장들인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문장도 진리함수적으로 상호 독립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은 이 요구를 만족시키는 ‘논리적으로 진정한’ 요소 문장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환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아울러 모든 문장들이 그러한 논리적으로 진정한 요소 문장들의 진리함수적 복합체로 분석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미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논고』에서의 비트겐슈타인이 도대체 어떻게 한편으로는 『논고』 진술들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당연하거나 자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논리적 분석의 개념을 제시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 자신은 요소 문장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입론이나 모든 진정한 문장들이 요소문장들의 진리함수적 복합체들로 분석될 수 있다는 입론을, 능숙한 언어사용자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당연한 사실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가령 다음과 같이 적고 있는 것이다.

요소문장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순전히 논리적 근거들만을 통해 알고 있다면, 분석되지 않은 형태의 문장들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반드시 이것을 알고 있다. (5.5562)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이 깨닫지 못했던 점은, 모든 가능한 언어의 본질인 단일한 논리가 있다는 그림, 요소문장의 상호 독립성 입론과 요소문장들로의 논리적 분석 입론을 낳은 바로 그 그림이, 대단히 유혹적이지만 또한 철학적으로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림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가 옳다면 이 논문에서 내가 제안한 『논고』의 해석은 매우 특이한 위치에 서게 된 듯하다.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을 취할 경우, 나는 『논고』의 진술들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단호한 해석’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을 취할 경우, 나는 전기 비트겐슈타인이 『논고』 진술들의 무의미성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입론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전통적 해석의 견해에 동의한다. ‘단호한 해석’의 옹호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사실은, 비트겐슈타인 전기 철학에서의 무의미 개념 자체가 그의 후기 철학에서 바뀌어 버렸으며, 따라서 과연 『논고』 진술들이 무의미한가 무의미하지 않은가라는 질문 자체가 후기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 제기된 질문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는 전기 비트겐슈타인이 옹호하고 있는 이른바 ‘입론’들이 『논고』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론들에서 나온 것이라는 전통적 해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입

론’들이 오직 논리가 가진 최고의 보편성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잘못된 그림만으로부터 나왔다는 나의 제안은 전통적 해석의 정신보다 오히려 ‘단호한 해석’의 정신에 더 가깝다. 그렇다면 나의 해석은 『논고』에 대한 전통적 해석인가, 아니면 ‘단호한 해석’인가? 둘 다 아닌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나는, 본 논문에서 제시된 해석이 전통적 해석과 ‘단호한 해석’의 장점들은 살리고 단점들은 제거했다는 점에서 양자에 대한 진정한 종합(synthesis)을 성취했다고 믿는다.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시절 원고들을 검토해보면 『논고』에 대한 가장 초창기의 그의 비판들이 논리적 추론의 진리함수성 입론, 아울러 이 입론의 귀결인 요소 문장의 진리함수적 독립성 및 모든 문장의 요소 문장들로의 분석가능성 입론, 이들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그러나 이후 비트겐슈타인의 비판들은 이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나의 논의가 옳다면 이는 당연한 일이다. 비트겐슈타인이 그의 전기 시절에 저지른 모든 오류들에 대한 진정한 진단(診斷)은 그것들의 최종 근원을 겨냥해야 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 오류들에 대한 진단은, 모든 가능한 언어의 본질인 단일한 논리가 있다는 그림,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근본 생각’을 낳았고 이어지는 ‘언어의 논리’에 대한 왜곡을 낳은 주범이었던 바로 그 그림을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가능한 언어의 본질인 단일한 논리가 있다는 『논고』식의 그림에 대한 비판은 『탐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탐구』의 머리말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나의 새로운 사고는] 옛 사고 방식의 배경 위에서 그것과의 대조에 의해서만 올바른 조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탐구』, p.viii)라고 언급하고 있는 까닭이다.

나는 이러한 관점에서 『탐구』를 고찰하는 것이 이 난해한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빛을 던져준다고 믿는다. 그러나 『탐구』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16) Wittgenstein 1933, p.33; Wittgenstein 1979, p.64, p.74, p.76, p.80, p.93, pp.182-4; Wittgenstein 1974, p.210, p.268 참조.

참고문헌

- 비트겐슈타인, 루트비히 (2006a), 이영철 옮김, 『논리 철학 논고』(서울: 책세상)
- 비트겐슈타인, 루트비히 (2006b), 이영철 옮김, 『철학적 탐구』(서울: 책세상)
- Anscombe, G.E.M (1971), *An Introduction to Wittgenstein's Tractatus*, 3rd ed.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lack, Max (1967), *A Companion to Wittgenstein's Tractatu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Carruthers, Peter (1990), *The Metaphysics of the Tractat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nant, James (2002), "The Method of the *Tractatus*", in E.Reck, ed., *From Frege to Wittgenste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374-462.
- Diamond, Cora (1988), "Throwing Away the Ladder: How to Read the *Tractatus*", *Philosophy* 63: 5-27.
- Diamond, Cora (1991), "Ethics, Imagination, and the Method of Wittgenstein's *Tractatus*," *Wiener Reihe* 5: 55-90.
- Floyd, Juliet (1998), "The Uncaptive Eye: Solipsism in Wittgenstein's *Tractatus*", in L. Rouner, ed., *Lonelines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pp.79-108.
- Goldfarb, Warren (1997), "Metaphysics and Nonsense: On Cora Diamond's *The Realistic Spirit*," *Journal of Philosophical Research* 22: 57-73.
- Hacker, P.M.S. (1989), *Insight and Illusion: Themes in the Philosophy of Wittgenstein*, revise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cker, P.M.S. (2000), "Was He Trying to Whistle It?," in A. Crary and R. Read, eds., *The New Wittgenstein* (London: Routledge), pp.353-88.

- Hintikka, Merrill B. and Hintikka, Jaakko (1986), *Investigating Wittgenstein* (Oxford: Blackwell).
- Kang, Jinho (2005), *The Road to the Tractatus: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Wittgenstein's Early Philosophy*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Kremer, Michael (2001), "The Purpose of Tractarian Nonsense", *Noûs* 35: 39-73.
- Mounce, H.O. (1989), *Wittgenstein's Tractatus: An Introdu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strow, Matthew (2002), *Wittgenstein's Tractatus: A Dialectical Interpre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ars, David (1987), *The False Prison: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Wittgenstein's Philosophy*, vol. 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roops, Ian (2001), "The New Wittgenstein: A Critique,"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9: 375-404.
- Ricketts, Thomas (1996), "Pictures, Logic and the Limits of Sense in Wittgenstein's *Tractatus*," in H. Sluga and D. Stern, 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Wittgenste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ssell, Bertrand (1984), *Theory of Knowledge: The 1913 Manuscript, The Collected Papers of Bertrand Russell, vol.7*, E. Eames, eds. (London: George Allen & Unwin).
- Russell, Bertrand (1992), "What is Logic?," in J. Slater, eds., *Logical Philosophical Papers 1909-13, The Collected Papers of Bertrand Russell, vol.6* (London: Routledge), pp.55-6.
- Russell, Bertrand (1993), *Toward the "Principles of Mathematics" 1900-02, The Collected Papers of Bertrand Russell, vol.3*, G.H.

- Moore, eds. (London: Routledge)
- Russell, Bertrand (1996), *Principles of Mathematic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originally published in 1903]).
- Russell, Bertrand and Whitehead, A.N. (1973), *Principia Mathematica*, vol.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ly published in 1910]).
- Stenius, Erik (1960), *Wittgenstein's Tractatus: A Critical Exposition of the Main Lines of Thought* (London: Blackwell).
- Wittgenstein, Ludwig (1993), "Some Remarks on Logical Form," in J. Klagge and A. Nordmann, eds., *Philosophical Occasions 1921-1951* (Indianapolis: Hackett, 1993), 29-35.
- Wittgenstein, Ludwig (1958),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2nd ed., R. Rhees and G.E.M. Anscombe, eds., G.E.M. Anscombe, trans. (Oxford: Blackwell)
- Wittgenstein, Ludwig (1973), *Letters to C.K. Ogden, with Comments on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Tractatus Logico Philosophicus*, G.H. von Wright, eds. (Oxford: Blackwell).
- Wittgenstein, Ludwig (1974), *Philosophical Grammar*, R. Rhees, eds., A.Kenny, trans. (Oxford: Blackwell).
- Wittgenstein, Ludwig (1978), *Remarks on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revised edition, G.H. von Wright, R. Rhees, and G.E.M. Anscombe, eds, G.E.M. Anscombe, trans. (Oxford: Blackwell).
- Wittgenstein, Ludwig (1979), *Wittgenstein and the Vienna Circle*, B. McGuinness, eds., B. McGuinness and J. Schulte, trans.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79).
- Wittgenstein, Ludwig (1981), *Tractatus Logico Philosophicus*, C.K. Ogden, tran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originally

published in 1922]).

Wittgenstein, Ludwig (1984), *Notebooks 1914-1916*, 2nd ed., G.H. von Wright and G.E.M. Anscombe, e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ittgenstein, Ludwig (1995), *Cambridge Letters: Correspondence with Russell, Keynes, Moore, Ramsey and Sraffa*, B. McGuinness and G.H. von Wright, eds. (Oxford: Blackwell). (Diamond 1988) (Diamond 1988)

Wittgenstein, Ludwig (1996), *Prototractatus: An Early Version of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2nd edition, B.F. McGuinness, T. Nyberg and G.H. von Wright, eds., D.F. Pears and B.F. McGuinness, trans. (London: Routledge).